

## 1775년 4월 19일 : 율곡의 등장

임태홍

1775년 4월 19일, 이른 봄에 핀 꽃들이 시들해져 갈 즈음.  
『일성록』 기록을 보면 갑자기 율곡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유의양이 물었다.

“밝은 덕(明德)을 심(心)이라 하기도 하고 성(性)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왕세손 정조가 답했다.

“성(性)이라고 한다면 심(心)과 정(情)을 빠뜨리게 되고 심(心)이라고 한다면 뜻이 갖추어지지 않을 듯하다. 선정(先正) 율곡(栗谷)이 말씀하신 대로 본심(本心) 두 글자로 보는 것이 좋겠다.”

유의양은 영조 39년(1763)에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궁중에 들어온 인물이다. 이날 왕세손을 모시고 『대학』을 읽다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대화중에서 궁금한 것은 왜 갑자기 ‘선정(先正) 율곡(栗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율곡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유학자고, 율곡 이외에도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율곡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 것일까?

‘선정(先正)’이란 ‘앞선 바름’ 즉 앞서 이전에 활동한 현명한 스승을 뜻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시대에 알려진 현명한 유학자가 율곡뿐이었을까?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율곡만이 밝은 덕, 즉 ‘명덕(明德)’을 논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학자들 중에 정조는 유독 율곡을 존경하고, 율곡은 그 시대에 이미 조선에서 손에 꼽히는 현인, 유학자로 추앙받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율곡은 유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정조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 일본학자 야마우치 코이치(山内弘一)가 2006년도 제19회 율곡문화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야마우치는 율곡의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율곡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조선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였다.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추이를 살펴보면서 율곡이 조선의 국가적인 학자로 평가되어가는 과정, 즉 문묘에서 종사(從祀)되는 과정을 이렇게 분석하였다.

조선 왕조 시대, 모든 유학자에게 최고의 영예는 문묘종사(文廟從祀), 즉 문묘에서 제사를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었다. 즉 종사(從祀, 제사지내 모심)되는 일이다.

문묘종사는 조선의 임금 입장에서는 ‘유학자를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며(崇儒重道), 문치(글로 다스림)를 훌륭하게 치장하고(賁飾文治)’ 나아가 ‘유학의 도를 밖으로 드러내며(表章儒道), 문치를 늘려서 꾸미는(增飾文治)’일을 말한다. 당시로서는 유교의 정신에 따라 시행하는 문치정치(文治政治) 혹은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표방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문묘종사였다. 요즘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임금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묘에 종사되는 유학자에 대한 평가는, 종사를 행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근거한다. 말하자면 시대의 평가다. 유학자 자신의 의지나 생존당시의 평가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후세 사람들이 내린 역사적 평가다. 말하자면 율곡이 문묘에 종사된 것은 후인들이 율곡을 종사하는 시점에서 내린 율곡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율곡은 이미 191년전(1584년) 선조 17년에 지병으로 서울에서 사망했다. 그는 이조판서(吏曹判書)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선조 24년에는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추존되었다. 그에 대한 당시의 위상은 이 정도에 그쳤다. 당시 사람들의 평가, 즉 존중은 후세사람들이 평가한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

율곡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광해군(光海君) 15년 즉 1609년(인조 원년)에 사람들이 임금을 옥좌에서 끌어내렸다. 서인(西人) 세력이 주동하여 광해군을 폐위한 것이다. 그 뒤 능양군(綾陽君, 후일의 인조)이 추대되었는데, 이 사건이 이른바 인조반정(仁祖反正)이다.

그런데 이때 서인 세력은 율곡 이이 제자들과 학문적,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율곡은 친구였던 우계 성혼과 함께 새로운 정권에서 특별한 존중을 받았다. 나아가 율곡과 성혼의 학맥을 따른 유학자들은 정권을 잡은 뒤 유교에 근거하는 문치정치 그리고 왕도정치를 표방하기 위한 중요한 인물로서 자기 세력의 정점에 위치한 율곡과 성혼을 내세웠다. 율곡은 이때부터 국가 차원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조반정 직후에 반정에 성공한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광해군이나 그를 지지한 북인(北人) 세력에 대해서는 파면과 면직, 그리고 탄압이 이루어졌다.

행정적으로는 당시 3월에 이정구(李廷龜)가 경연 장소에서, 율곡을 유종(儒宗: 유학에 정통한 권위 있는 학자)으로서 특별히 포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것을 근거로 율곡에 대해 영의정(領議政) 등의 관직과 작위를 주고 국가차원에서, 국왕이 보낸 사절에 의해서 율곡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다.

『인조실록(仁祖實錄)』 3월 25일 기록을 보면 상세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즉, 경연의 자리에서 지사(知事) 이정구(李廷龜)가 “근래의 유생 중에는, 이와 성혼만큼 학문상의 계보가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을 보내서 제사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27일, 다시 경연의 자리에서 율곡의 문묘종사 이야기가 나왔다. 문묘종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특진관(特進官) 류순익(柳舜翼)이 이렇게 주장했다.

“군주가 ‘숭유중도(崇儒重道), 분식문치(賁飾文治)’하기 위해서 선현 율곡 이이를 문묘에 종사한다면, 선비들의 의견은 널리 찬성한다.”

그런데 당시의 임금, 즉 인조의 의견은 달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인조는 “문묘종사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경솔하게 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율곡의 문묘종사를 주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광해군 2년, 즉 1610년 10월에, 유생 변취정(邊就正)이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에 대한 문묘종사의 상소를 올렸다. 다만 당시는 북인(大北)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율곡에 대한 문묘종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인조가 율곡의 문묘종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자 경연에 참가하고 있던 시독관(侍讀官) 이민구(李敏求), 검토관(檢討官) 유백증(兪伯曾), 헌납(獻納) 이경여(李敬輿) 등이 각각 다음과 같은 채근했다.

이민구: “이이는 보기 드문 유생입니다. 신속하게 종사를 해야 합니다. 전하는 이이의 학문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할 수는 없다고 하시지만, 이이의 문집을 보면 탁월한 그의 학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백증: “이이의 종사는 나라에서 공동으로 의논할 일입니다. 이전에는 공론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문집을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종사를 해야 합니다.”

이경여: “율곡 이이에 대한 종사 논의가 공론인 것은 전하가 이미 들은 바 그대로입니다. 총명한 전하는 이이의 문집을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의리나 도학이 분명하지 않고, 유생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라도, 당장 종사를 행해야 합니다.”

율곡에 대한 문묘종사가 ‘공론’이라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신하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묘 종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일이니까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이의 문인 제자나 지인들의 의견에 따라 갑자기 종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신하들의 공세에 인조는 한발 물러섰다.

이때는 반정으로 정권을 잡고 2주 정도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공론이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신하들이 율곡 문묘종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조는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했다. 그들이 공론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이전에 정권을 잡고 있던 북인들은 반대한 사항이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도록 공을 세운 서인 세력이 들고 일어나 그것이 공론이라고 하니 인조도 딱히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인조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인조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던 이경여가 이렇게 나섰다.

“저희들의 요청은 나라의 공론이고, 문묘에 종사해야 할 진정한 선현이 율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호의를 가진 인물(즉 율곡)에게 아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조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율곡의 문묘종사는 다시 미루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인 세력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재론했다.

이듬해 8월, 율곡에게 문성(文成)이라고 하는 시호가 수여되었다. 이정구(李

廷龜)가 저술한 「묘표음기(墓表陰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인조가 즉위 한 초기에, 경연관은 이이의 행장(行狀)과 저작인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인조에게 올렸다. 인조는 이것들을 읽고 감탄하면서 이이에게 영의정(領議政)을 내려주고, 또 문성공(文成公)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문(文)은 ‘도덕전문(道德博聞)’의 뜻이며, 성(成)은 ‘안민입정(安民立政)’의 뜻이었다.”

율곡에게 조정에서 영의정이라고 하는 직책을 추증(追贈)한 것은 인조 원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일이 실현된 것은 서인 세력이었던 경연관들이, 임금에게 율곡의 저작을 올리고 호소하여 율곡이 매우 훌륭한 유학자임을 ‘이해 시킨’ 결과였다.

율곡에게 시호를 수여한 인조 2년 8월, 어느 날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인조실록』)

“이이는 치국(治國)의 근본을 아는 사람으로, 조정에서 오랜 시간 활약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율곡에 대한 높은 평가는 바로 이때, 공식적인 견해로 확정되었다. 율곡이 국가 차원의 대유학자로 격상된 것이다. 율곡에 대해서 후세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평가, 즉 율곡이 뛰어난 경세가라고 하는 평가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 후 이괄(李适)의 난이나 정묘(丁卯) 호란(胡亂)을 거쳐 인조 13년, 즉 1635년 5월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종사를 요구하는 관학(館學) 유학자들, 즉 송시형(宋時瑩)등 270여명의 상소가 다시 제출되었다.

인조는 상소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이와 성혼은 착한사람이지만, 도덕은 아직 높지는 않고, 비판을 받을 만한 결점이 있다. 종사라는 중요한 문제를 경솔하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인조는 여전히 문묘 종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율곡에 대한 평가는 그의 평가는 변함이 없었다.

『인조실록』에는 인조의 평가 뒤에 다음과 같은 사관(史官)의 논평을 실었다.

“도학(道德)이 고명한 이이와 실천이 독실한 성혼은, 백세(百世)의 유종(儒宗)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의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론(黨論)

이 격렬해진 이래, 현자(賢者)를 질투하고 정의를 싫어하는 소인(小人)이 잇달아 나타나서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사태가 되었다. 인조가 “도덕은 아직 높지는 않고, 비판 받을만한 결점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것도 이러한 소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송시영 등이 신중하지 못한 채로 상소를 하여, 이이와 성혼이 오히려 소인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사관은 율곡에 대한 반대파들의 입장을 인조가 받아들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대파들은 주로 남인들, 즉 주로 퇴계 이황을 존중한 유학자들이었다. ‘소인들의 비방’이란 어떠한 것일까?

먼저 생원 채진후(蔡振後)라는 인물은 이렇게 ‘비방’했다.

율곡 자신이 쓴 문장을 보면 ‘일찍 어머니를 잃고 너무 슬픈 나머지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에 귀의했다’, ‘자신만큼 불교에 중독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율곡이 젊었을 때 불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묘 종사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조는 채진후의 이러한 비판을 접하고 이렇게 말했다.

“율곡 이이 등의 종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주체넘은 것이며 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진사(進士) 권적(權蹟) 등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지금의 논자가 이이와 성혼을 공맹(孔孟) 정주(程朱)의 학문적인 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다. 조선의 유종(儒宗)은 이황이 으뜸이지만, 이황의 이기설은 이이와 차이가 있다. 또 이황은 나정암(羅整庵)을 선(禪)이라고 해서 배척했지만 이이는 자기 스스로 얻은 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이이가 불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소인들의 비방’은 율곡이 불교에 관여하였던 점과 퇴계 이황과 이기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점에 대해 율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하였다.

“소인들은 율곡과 같은 대현(大賢)조차도 미워하고 결점을 찾아, 젊었을 때 불교로 흐른 점을 문제로 삼는다. 그러나 예로부터 현인이 도를 추구하는 당초에는 이런 잘못된 사례가 많다. 분명하게 버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조익

趙翼)

(임금이 율곡은 ‘비판 받을만한 결점이 있다’거나 율곡의 종사가 ‘지극히 주제를 넘는 짓’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경모존신(敬慕尊信)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전하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오윤겸吳允謙)

『인조실록』에 첨부된 안문(按文)에도 이런 주장이 있다.

“율곡 이이의 이기설은 탁월하여, 퇴계 이황도 살아 있었다면 인정했을 것이다. 나정암의 이기론은 몹시 뛰어난 자득설(自得說)로서, 그가 선(禪)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그 논의의 좋은 부분을 버릴 수는 없다. 권적 등이 이 말을 붙잡고 비난하는 것은 도를 어지럽히는 소인의 논의로 취할 가치가 없다.”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종사를 요구하는 관학 유생 송시영 등의 상소를 계기로, 조정의 안팎으로 유생으로부터 대신까지 격렬한 논의가 일어났다.

성균관 유생들의 의견도 분열되고, 그들의 처분 등을 둘러싸고 유생들이 일제히 성균관을 퇴거하여 성균관이 텅비어버리는 사태로 발전되었다.

송시영 등의 입장을 동정했던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최명길(崔鳴吉)이, 사직을 청해서 해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조는 끝까지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도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종사를 요구하는 상소가 많이 나왔는데 숙종 7년(1681) 9월 27일에, 종사 반대하여 나섰던 박성익(朴性義) 등 두 사람의 상소에 의하면, 효종(孝宗), 현종(顯宗) 시대에는 유생의 상소가 수십 통이나 되었다. 하지만 효종과 현종도 율곡의 문묘종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효종은 경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조시대에 종사 논의가 있었지만 인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금은 나를 꺼려하지 않고 이런 곤란한 행동을 일으킨다.”

“인조가 학문의 세계에 대해서 사려함의 높이는 내가 미치는 바가 아니다. 인조는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단호하게 물리쳤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경솔하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현종도 율곡과 우계를 문묘 종사하자는 유생들의 상소에 대해서 “효종이 곤란하다고 한 것을 너희들은 왜 상소를 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인가?”라고 짜증을 냈다.

효종, 현종의 시대에도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숙종 6년, 이른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즉 경신환국(庚申換局)에서 남인 세력이 몰락하여, 율곡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던 상황이 일변했다.

그 다음 해인 7년 9월, 관학(館學)의 학생들과 팔도유생(八道儒生) 이정보(李廷普) 등 오백여명이 송나라 양시(楊時), 나종언(羅從彦), 이동(李侗) 등 세 명과 함께, 조선의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두 사람도 문묘에 종사하도록 요구했다.

숙종(경종과 영조의 부친)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다음날 경연의 장소에서 검토관(檢討官) 송광연(宋光淵)이 종사를 재촉하고 또 이정보 등이 다시 상소한 것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곡과 우계) 두 사람의 도덕 학문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자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역대 국왕이 허락하지 않고 나도 곤란하다고 한 것은 모두 신중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람의 소원은 절실하기에 거절하는 것은 어렵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대신(大臣)들더러 도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신 김수항(金壽恒), 김수흥(金壽興), 정지화(鄭知和), 민정중(閔鼎重), 이상진(李尙眞) 등이 모두 인정했다. 이 때문에 율곡의 문묘 종사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 해 9월 25일 경연 때에는, 영의정 김수항이 숙종에게 이이의 서간이나 상소문(上疏文) 외에 『동호문답(東湖問答)』이나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읽을 것을 권하고 동지경연(同知經筵) 이민서(李敏叙)의 청으로 이이와 성혼의 저작이 진강(進講)되었다.

하지만 유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율곡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9월 27일, 박성의(朴性義) 등이 또 상소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즉, 율곡은 불교에 대한 관여하였으며, 이기설이 현사(賢師), 즉 이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점은 인조시대 이래 율곡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남인들의 논점과 같았다.



하지만 여기에 새롭게 더해진 것은 앞선 임금들, 즉 인조, 효종, 현종의 3대 국왕이 이미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었다.

박성의 등은, 인조가 “도덕은 아직 높지는 않고 비판받을만한 결점이 있다”라고 한 말은 만세 불변의 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효종과 현종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단호한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였다. 숙종이 말하듯이 우선 신중을 기해서 장래에 문묘종사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숙종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율곡의 문묘종사를 찬성하는 쪽의 유학자들의 반론은 다음과 같았다.

불교 관여에 대해서는, 숙종이 “주자도 당초는 불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이의 결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말처럼, 이점에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기설에 대해서는, 송광연(宋光淵)등이 상소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생각 کن데 조선의 성리학은 이황에 이르러 많이 명백해졌지만, 이황을 평생 동안 존경하고 믿었다는 점에서 이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단지 이기설에서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약간 결점이 있어……도리를 철저히 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통기국(理通氣局),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주장하고, 지당한 설을 추구했을뿐이다”

인조시대의 반론과 기본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앞선 세 분의 임금이 이미 불허가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승정원(承政院)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전하가 역대의 국왕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현하고, ‘송유중도(崇儒重道: 유학을 존숭하고 도를 중시 한다)’의 의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박성의 등이 한때 잠정적으로 제시된 3대 국왕의 왕명을 들어, 전하가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허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분개를 금할 길이 없다”

인조, 효종, 현종 3대의 국왕이 내린 왕명이 율곡을 문묘종사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에 따랐던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애매한 결정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은 당파에 따라서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사실 어느 쪽이 정확한지

는 알 수 없다.

승정원은 박성의를 “한쪽으로 치우친 당파의 논의를 계승하여, 흥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성의 쪽도 할 말이 있었을 것이다. 즉, 그는 숙종이 종사의 가부(可否)를 대신들에게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했다.

“전하는 공의(公議)를 구하도록 대신들에게 위임한 것이라 하시겠지만 오늘날 대신은 이전에 (울곡 문묘종사를 요구하는)상소를 낸 유생이고, 오늘 상소를 낸 대표는 그 대신의 아들이어서, 대신과 유생이 사실은 서로 통한다.”

말하자면 이번 종사의 결정이 울곡 문묘종사를 지지하는 당파의 당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박성의는 결국 유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숙종 8년 5월, 송나라 3현에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합쳐 5현의 문묘종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시 7년 후에는 이런 상황이 뒤집어졌다.

이른바 기사환국(己巳換局)에서, 노론(老論) 소론(少論) 세력의 대부분이 배척되고, 남인 세력이 정권에 복귀한 것이다. 환국 후인 숙종 15년 2월에는 유학(幼學) 안전(安堅)이, 그리고 3월 12일에는 진사(進士) 이현령(李玄齡) 등이 상소를 올려,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문묘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

숙종은 이에 대해 축출을 경솔하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현령 등이 재차 상소를 했다.

숙종은 결국 그들 의견에 따랐다.

숙종은 “사림이 문묘에서 이이와 성혼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역대 국왕의 명확한 명령의 말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축출할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축출에 반대하는 진사 심제현(沈齊賢)등 상소가 제출되었다. 그래서 숙종은 승정원에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이이와 성혼은 종사해서는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문묘를 더럽혀버려서, 지금은 통절하게 후회하고 있다. 관학의 유생과 사림이 이이와 성혼의 출향(문묘에서 축출)을 요구하는 상소 내용은, 나의 마음에 꼭 맞기에 즐거이 인정한다.”

그리고 축출 반대를 주장하는 심제현에게 유배처분을 내렸다. 결국 18일에 이이와 성혼을 문묘로부터 축출해버렸다.

『숙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숙종은 진심으로 훌륭한 유학자를 존중하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시류에 따라서 허례(虛禮)를 유현에 더했을 뿐이다. 이것은 그 유학자에게 영예가 아니고, 또 군주에게 덕이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다. 때문에 조정의 신하가 바뀌면, 문묘 종사 시작에서 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아 출향(黜享)을 행했다. 후에 복향을 했지만, 그것도 사림의 요구에 내키는 대로 응한 것일 뿐, 숙종에게 ‘숭유중도(崇儒重道, 유학자를 존중하고 도를 중시함)’의 아름다운 뜻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율곡은 문묘에 종사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나중에 문묘에 다시 복향이 되었다. 그런데 숙종이 율곡의 문묘 종사를 명했던 것은 진심으로 그를 존중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각 당파의 주장을 기초로 한, 말하자면 조정에서 일어나는 공의공론(公議公論)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숙종 20년(1694) 정월에, 숙종 다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문묘종사는 극히 중대한 것으로서 종사해야 할 사람을 종사하지 않는 것은, 한때의 결례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렇지만 종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종사해 버린 것은 문묘나 사림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이와 성혼이 도덕적으로 아직 갖춰지지 않고 덮기 어려운 결점이 있다는 점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종사했다.”

말하자면 후회한 것이다. 자기반성이기도 했다. 숙종은 향후 공의 공론을 분별하지 않고 이이와 성혼의 종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전국의 학교에 포고하였다.

하지만 그 해에 이른바 갑술환국에서 남인 세력이 몰락해버렸다. 그리고 4월 20일에 유학 신상동(辛相東)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복향을 요구했다.

숙종은 그러한 주장에 이해를 표시했지만, 문묘제도가 뒤집힌다고 하여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21일의 충청도 유학 임봉선(林鳳珍)등의 상소를 계기로 숙종은 “정을 증오하는 무리에 속아서 이이와 성혼을 출향한 것을 나는 후회하고 있다. 문묘의 제도가 뒤집히는 것을 심려하여 즉시 행하지 않으면 결례가 된다.”라고 말하고 복향을 명했다.

다시 율곡이 문묘에 모셔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숙종 자신의 의견

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공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으로서는 공론이 변하면 그러한 논의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

4월 25일에 복향에 반대하여 진사 한종석(韓宗奭)등이 상소했다. 그 다음날 한종석은 숙종 15년에 출향을 요구하는 상소를 제출했던 안전(安堅)이나 이현령과 함께 유배 처분이 되었다.

6월 23일에는 문묘에서 두 사람의 복향이 행해져 숙종은 전국에 복향을 고하는 교서(敎書)를 반포했다. 이 교서를 제작한 것은 병상에서 상소문을 제출해 인조를 충고한 좌의정(左議政, 후에 領議政) 오윤겸의 손자였다. 율곡 문묘에 대한 대를 이은 지지였다.

율곡 이이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그의 사후 역사적으로 변천해왔다. 율곡의 문묘 종사 과정을 살펴보면 각 시대의 가치관 변했다. 즉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공론’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가치관은 수시로 변했고, 임금들은 그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율곡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각에서 본다면 율곡의 문묘종사를 둘러싸고 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느 쪽도 보편성을 가진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각종 『왕조실록』도 사실 율곡 이이의 문묘종사를 찬성하는 서인과 즉 노론과 소론의 작품이었다. 따라서 반대파 즉 남인세력의 의견에 대해서는, ‘소인들의 비방’으로 평가절하하였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사관들의 의견 역시 편향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이후 영조시대에 율곡은 이미 조선의 대표적인 현인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리고 퇴계 이황과 함께 견줄 수 있는 유학자로 위상이 격상되어 있었다.

일본 유학자 야마우치 교수의 율곡 종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율곡에 대한 사상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와는 별개 차원의 다른 이야기다. 율곡에 대한 후세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주목한 것이다. 율곡이 한사람의 유학자에서 조선유학의 대표적인 한 축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지나간 시간의 치열한 평가 과정이 있었다.

1775년 4월 19일 『일성록』 기록에, 경연 장소에서 갑자기 율곡이 등장한 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